

공수처장 갈등... 與 “고의 지연댄 법 개정” 野 “신중해야”

추천위, 9시간 마라톤 회의에도 후보 2명 압축 못하고 종료 '추가 검증 필요' 결론...18일 10명 후보 놓고 다시 회의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추천위원회가 결론 없이 종료돼 오는 18일 10명 예비후보를 놓고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여권 추천위원들은 지난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40분까지 2차 회의를 열고 결론을 낸다는 각오였으나 적합성 판단을 위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추천위는 이날 회의에서 예비후보 10명의 자료를 검증하며 마라톤 회의를 벌였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추천할 후보자 2명을 선정하지 못했다. 추천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위원들이 각자 추천한 후보에 대해 설명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사람이 공수처장으로 추천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추천위원 7명은 회의에서 각 후보의 퇴임 후 사건 수임 내역을 검토해 전

관여 문제를 살피고, 재산과 부동산 거래 내역 등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 본인에게 직접 문자메시지 등으로 질의하기도 했다. 다만 공수처장 후보로 적합성을 판단하려면 추가 확인할 사항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추천위는 실무지원단을 통해 해당 후보의 답변을 받기로 했다. 회의가 각각 예비후보에 대한 자료 검증 위주로 진행되면서 10명의 예비후보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는 압축 논의도 진행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추천위원 사이에서는 ‘신속론’과 ‘신중론’이 맞부딪히며 신경전도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추천위는 오는 18일 오후 2시 국회에서 10명 예

비후보를 놓고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당연직 추천위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회의 후 “모든 후보에 대해 질문이 있었다”며 “해당 추천위원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그 자리에서 답변했고, 못 하는 것은 후보 본인에게 확인해 볼 시간을 갖자고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측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는 “다음번 회의를 한 번 더 하면 될 듯하다”면서도 “후보군을 좁혀 가는 방법도 논의했지만, 어떤 방식으로 할지도 다음 회의 때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인 이현 변호사는 “추천위가 두 명을 바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기 때문에 병

역, 가족, 재산 등 기초적 인사 검증자료가 필요하다”며 “후보자 중 상당수는 그런 자료가 누락됐고, 본인 해명이 필요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 추천위가 이날 후보 선정을 하지 못하면서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간 긴장이 다시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중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까지 마쳐야 한다고 밝힌 민주당은 추천 절차가 고의로 지연된다고 판단될 경우 공수처법 개정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력한 권한을 가진 공수처장의 중립성·공정성 의지를 신중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美 출국하는 '민주당 한반도TF' 더불어민주당 한반도태스크포스(TF) 송영길 위원장이 15일 오전 미국 방문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출국장으로 이동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왼쪽부터 김한정 의원, 송영길 위원장, 윤건영 의원. /연합뉴스

윤석열發 대선 여론조사 신뢰성 논란

꺾임조사서 11% 이틀만에 3위로... 조사 방식따라 들쭉날쭉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에서 3위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제치고 '꺾임 1위'에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지 불과 이틀 만에 여론조사의 신뢰성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갤럽은 지난 10~12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가 나란히 19%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이 대표의 지지도는 2%포인트 높아졌고, 이 지사는 1%포인트 하락했다. 윤 총장은 한 달 전보다 8%포인트 오른 11%로 3위를 차지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3%,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1%였다. 앞서 11일 발표된 한길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윤 총장은 24.7%로 이낙연 대표(22.2%)와 이재명 지사(18.4%)를 제치고 1위에 오른 바 있다. 이틀 만에 윤 총장의 지지율이 '반 토막'이 난 것은, 조사 방식의 문제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갤럽은 후보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자유 응답을 받는 형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반면 한길리서치 조사에서는 심상정·안철수·윤석열·이낙연·이재명·홍준표 등 6명만 후보로 제시했다. 이에 야권 지지자들의 '솔람'이 벌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CBS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윤 총장의 차기 대선 지지도는 11.1%로 이낙연 대표(21.1%)와 이재명 지사(20.9%)에 이어 3위였다. KSOI도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물으면서 총 11명의 후보를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포인트 오른 46%, 부정 평가는 2%포인트 내린 45%로 집계됐다. 4주 만에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앞질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양정철, 정치 지지개?

이낙연·정세균 등 대권주자와 연쇄 회동...여권내 원팀 강조

'총선 압승' 직후 민주당을 떠나 잠행을 이어온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물 밑에서 정치 지지개를 켜고 있어 주목된다. 친문(친문재인)계 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그가 마지막 비서실장을 맡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가운데 대통령 결이 아닌 대선 가도에서 또 한 번 '책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5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양 전 원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양대 주자인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각각 만나 정국 현안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또 정세균 국무총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경수 경남지사, 이광재·김두관 의원 등 잠재적 주자들과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원장은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차기

대선을 앞두고 친문의 세력화 보다는 여러 주자들이 나서 당내의 역동성을 키워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밑에서 운신의 폭을 차츰 넓히고 있지만 특정 주자 내지 세력을 만드는 오히려 역측을 우려해 "당분간은 무조건 중립"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양 전 원장은 도종환 의원 등 친문 현역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민주주의4.0 연구원'(가칭) 측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문계 움직임이 자칫 특정 주자 지지라는 오해를 사거나 당내 '원팀' 기조를 흐트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2심 유죄판결 직후 당내 친문계 일부에서 세대교체를 고리로 한 '제3후보'를 내세우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는 사뭇 결이 다른 행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양 전 원장과 가까운 광주 도 의원은 "양 전 원장은 정권재창출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친문 주자' 논란보다는 여권 내부에서 여러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주자들이 함께 부각되면서 미래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창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내 관계자는 "현재 구도도 가변 차기 대선을 앞두고 당내 역동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이왕이면 많은 주자들이 나서 경선의 역동성이 커지면서 미래 비전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 양 전 원장 등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양 전 원장은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 일절 함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권에서는 연 말연초 개각과 청와대 개편 때 노영민 비서실장의 후임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당 전면에 복귀해 내년 재보선 전략을 짤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한 지인은 "본인의 거취문제에 분명히 선을 긋고 있지만, 정권 재창출을 위한 역할은 피하지 않겠다는 각오"라고 전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양향자, 과기부장관 '산업·기술부총리 겸직'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양향자(서구을) 국회의원은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산업·기술부총리를 겸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기술부총리법'(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산기부총리가 탄생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과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산업 구조의 근간을 AI·빅데이터·바이오·미래차·탄소중립 등의 첨단산업 기반으로 재편하려는 목적이 크지만 이를 총체적으로 이끌어갈 사령탑이 없어 정책 수립과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우려가 있다는 게 양 의원의

주장이다. 양 의원은 "코로나 경제 위기와 한국판 뉴딜로 산업 구조 재편이 불가피하지만, 산업 전반적인 관점에서 이를 총체적으로 이끌어갈 사령탑은 부재한 상황"이라며 "분절적이고 단기적 차원이 아닌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에서 산업, 기술, 과학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산업·기술부총리는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토지, 건물, 정원수(아파트용) 매매

1. 토지와 아파트용 정원수 포함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전 9,190㎡ 소나무 15년생 외 7중 2천여주 아파트 조경수 포함 광주 간 25분 신설 4차선 국도 근접. 전원주택, 펜션, 다목적 사용가 포장도로 접 ㎡ 7천원

2. 상가건물
(1) 광주 북. 오치 4층 대 384㎡ 연 998㎡ 사거리 코너 요지 매 16억8천만원 보 2억 월 6백6십만원
(2) 광주 동. 총창로5가 상업지역 도매상 주동로 5층 승강기 유 대 222㎡ 연 956㎡ 보 8천만원 월 4백만원 가 매 13억원 전면 18m 접
(3) 광주 동. 대인동시장 야시장 주동로 코너 점포 8칸 대 238㎡ 연 257.8㎡ 주변 아파트 9천여세대 건축 중 투자 효과 최상 매 9억9천 보 1천6백 월 2백만원, 상업지역

3. 전원주택, 가든, 카페 등 용지
(1) 순창 금과 고례리 광주간 25분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대지 1,163㎡(담 포함) 건물 66㎡ 벽돌조 스라브층, 수리사용가 산 아래 마을 뒷 야미산 바라본 정남 매 9천9백만원
(2)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0분 메타가수길 7004m접 계획관리지역 전 4,363㎡ 덕진산자락 정남 경관수려 ㎡ 13만원
(3) 화순 북면 옥리 금호온천 입구 도로접 계획관리지역 전 531㎡ 매 15만원

국민공인중개사 ☎ 062-268-8289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삼성유희플러스 길 건너편 동광주빌딩 내

민식이법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

민식이법이란 무엇인가요?

- 2020년 3월 25일 시행
-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 신호등 등 안전시설물 설치 의무
- 운전자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교통사고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사망 3년이상 또는 무기징역
상해 1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과 법규준수 잊지 마세요.”

KoROAD 도로교통공단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24시간 상담가능

010-9576-8289, 직통전화 062)464-9706